

#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57)

"일본이 만든 군사비행장이 집단학살터로"

입력 : 2007. 03.01. 00:00:00



▲일제에 의해 군사비행장으로 건설된 정뜨르비행장(점선안)이 오늘날 제주국제공항으로 변모한 모습./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 "4·3 등 시기 1천여명 불법 처형"說

### 유해발굴에 관계기관 적극 지원 필요

하루에도 수십대의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는 제주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의 옛 이름은 '정뜨르비행장'이다. 정뜨르비행장은 일본제국주의가 태평양전쟁을 시작하면서 건설한 군사비행장이다. 1942년 무렵 일본 육군비행장으로 처음 개항한 뒤 오늘날 국제공항으로 변모하면서 4차에 걸쳐 확장됐다.

정뜨르비행장은 제주도민들에게 비극과 통곡의 땅이다. 태평양전쟁 시기에는 일제에 의한 강제노역의 무대로, 이어진 제주4·3과 한국동란기에는 집단 학살·암매장터가 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의 비극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수십대의 비행기가 씩없이 뜨고 내린다.

제주의 한 시인은 정뜨르비행장의 비극을 이렇게 읊었다.

하루에도 수백명 시조새들이 / 날카로운 발톱으로 바닥을 할퀴며 차오르고 / 찢어지는 굉음으로 바닥을 짓누르며 내려앉는다 / 차오르고 내려앉을 때마다 / 뼈 무너지는 소리 들린다 / 뼈직 뼈직 빠지지직 / 뼈직 뼈직 빠지지직 // 시커먼 아스팔트 활주로 그 밑바닥 / 반백년 전 / 까닭도 모르게 생매장되면서 한 번 죽고 / 땅이 파헤쳐지면서 이래저래 헤 갈라져 두 번 죽고 / 활주위가 뒤덮이면서 숨통 막혀 세 번 죽고 / 그 위를 공룡의 시조 새가 / 발톱으로 할퀴고 지날 때마다 다시 죽고 / 육중한 몸뚱어리로 짓이길 때마다 다시 죽고 / 그때마다 산산이 부서지는 뼈소리 들린다 /.../ (김수열 시 '정뜨르비행장' 일부)

'정뜨르비행장'은 1948년 발생한 제주4·3 당시 일상적으로 학살이 이뤄지던 곳이다. 당시 제주 읍(현 제주시) 동쪽의 집단 학살·암매장지가 별도봉 ? 사라봉이었다면 서쪽은 정뜨르비행장이 꼽힌다. 이를 말해주듯 2월부터 발굴에 들어간 제주시 화북동의 별도봉 일본군 갱도에서는 4·3 당시 학살암매장된 유해 5구가 발견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정뜨르비행장 일대에서 얼마나 많은 주민이 비명에 죽어갔는지 정확한 규모 등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생존자나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뜨르비행장 일대에서는 1천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학살돼 암매장됐다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1949년 10월 2일 소위 제2차 군법회의 사형수 2백49명의 총살과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예비검속(豫備檢束) 주민 5백여 명에 대한 집단학살이다.

가장 많은 학살이 이뤄진 곳은 현재 제주국제공항 동쪽 철조망 경계지대로, 철조망 안쪽으로도 3~4곳의 학살터가 더 있다고 증언한다. 당시 시신이 썩어가는 냄새로 밥을 못해먹을 정도였다는 것. 또한 속칭 '도령마루'(해태동산으로 알려진 곳)에서의 주민학살도 부지기수로 자행됐다고 한다.

당시 자행된 학살은 대부분 불법적인 상태에서 이뤄졌다. 즉 예비검속법은 1945년 미군정 때 폐지된 법률이어서 사실상 불법 학살인 셈이다. 또 한국전쟁 당시 거창, 노근리 등 육지부에서도 양민학살이 있었지만 이는 '군명령'이나 '예비구금'에 의해 자행된 것이다. 당시 '예비검속'의 명분으로 양민학살이 이뤄진 곳은 제주도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발굴단이 별도봉 일본군 갱도에서 발굴된 유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60여 년 가까운 세월을 활주로 바닥에 묻혀있는 희생자들을 수습하는 일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당시 집단 학살암매장이 이뤄진 지역은 현재 상당부분 제주공항부지로 편입돼 있다. 제주대학교와 제주4·3연구소 등으로 이뤄진 공동유해발굴단은 올해 옛 정뜨르비행장 일대 학살암매장지에 대해 발굴을 계획하고 있으나 '공항'이라는 특성상 일정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유해발굴단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뜨르비행장 집단 학살암매장지에 대한 발굴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의 전향적인 지원과 협조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 [전문가리포트]"지속적인 조사작업 절실 "



태평양전쟁 시기 제주 전역에 구축됐던 일본군 군사시설과 동원됐던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연구는 해방 공간의 4·3, 뒤이은 한국전쟁과 무관하지 않다.

우선, 태평양 전쟁을 전후로 점령군이 일본군에서 미군으로, 미군정을 배후로 한 이승만 정부까지 일관된 맥락으로 이어졌던 당시 한국사회의 거시적인 정치 환경이 그러하다.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두 시기를 잇는 여러 아이콘들이 시야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일제 시기 군사시설로 사용되던 장소가 해방 이후 4·3과 한국 전쟁을 거치며 집단 학살지로 이용됐던 경우가 그러하다. 그 점에서 지난 2월 8일부터 제주시 화북일동 속칭 '별도봉 일본군 갱도진지'에서 진행 중인 4·3희생자 유해발굴 작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갱도 입구부에 수 십구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는 사건 생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함몰돼 있는 갱도의 입구를 찾아 내부로 진입한 후 전체 윤곽을 확인하고, 범위를 확장해 가면서 유해와 유류품을 발굴·수습했던 이번 작업은 태평양 전쟁 전후를 하나의 '연계된 역사'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공간'의 연속성은 '정뜨르 일본군 비행장'이 4·3과 한국전쟁 시기에 제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암매장시켰던 장소로 사용됐고, '알뜨르 비행장 탄약고터'가 '섯알오름 학살터'로 불리는 맥락을 통해서도 이해 가능하다.

또한 '공간'은 '사람'과 떼내어 생각될 수 없는데, 지난 2000년에 백조일손 유족회가 '섯알오름 학살터'에서 유해와 유류품을 발굴하여 수습했고, 2007년 하반기(예정)부터 구 정뜨르 비행장 인근(현 제주국제공항) 지역에 대한 4·3희생자 유해발굴 2단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994년에 발이오름의 일본군 갱도진지에서 4·3당시 학살되어 방치되던 유해가 수습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제, 요구되어지는 덕목은 제주민(濟州民)의 시각에서, 태평양전쟁과 4·3, 한국전쟁 시기를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조망해야 한다는 점이다. 관련한 기존의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초 조사 작업이 절실하다. 빠르게 만들어지는 콘텐츠는 이미지만 남을 뿐, 어느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사례를 보고 있지 않은가.

<고성만/(사)제주4·3연구소 연구원>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